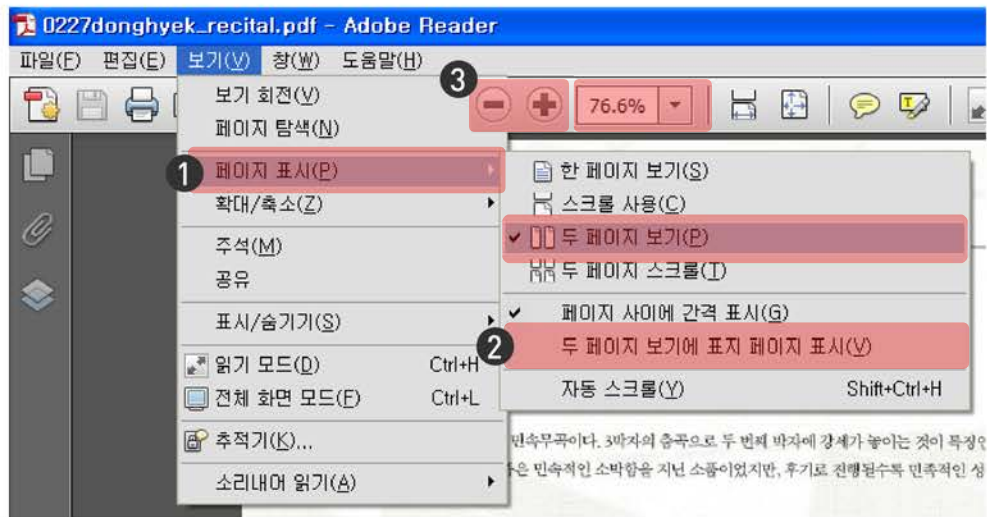


CRE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ONE KOREA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 평화콘서트

© JEAN-FRANÇOIS LELERCO



주최

MBC CREDIA Projects MIOIM

협찬

KB국민은행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MYUNG-WHUN CHUNG & ONE KOREA ORCHESTRA

#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평화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합창'

**프로그램 PROGRAM** 02

**아티스트 PROFILE** 08

지휘 | 정명훈 Myung-Whun Chung, Conductor

연주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One Korea Orchestra

소프라노 | 홍주영 Ju-Young Hong, Soprano

메조소프라노 | 양송미 Songmi Yang, Mezzo-Soprano

테너 | 박지민 Ji-Min Park, Tenor

베이스 | 함석헌 Seokheon Hamm, Bass

국립합창단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안양시립합창단 The Anyang Civic Chorale

**기사 ARTICLE** 19

## 2018년 9월 2일 (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PM, Sunday, September 2,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지휘 | 정명훈 Myung-Whun Chung, Conductor  
 연주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One Korea Orchestra  
 소프라노 | 홍주영 Ju-Young Hong, Soprano  
 메조소프라노 | 양송미 Songmi Yang, Mezzo-Soprano  
 테너 | 박지민 Ji-Min Park, Tenor  
 베이스 | 함석헌 Seokheon Hamm, Bass  
 국립합창단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안양시립합창단 The Anyang Civic Chorale

베토벤 1770-1827

## 교향곡 제 9번 D단조 Op.125 '합창'

60'

L.v. Beethoven

##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I. 알레그로 마 논 트로포, 운 포코 마에스토소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조금 장엄하게)

II. 스케르초. 몰토 비바체 Scherzo. Molto Vivace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III. 아다지오 몰토 에 칸타빌레 Adagio molto e cantabile  
 (조금 느리게 그리고 노래하듯이)

IV. 프레스토 - 알레그로 아사이 - 프레스티시모 Presto - Allegro assai - Prestissimo  
 (매우 빠르게 - 빠르게 - 가장 빠르게)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BTS 진



BTS 지민



BTS 슈가

KB금융그룹



BTS 뷁



BTS 정국



BTS RM




BTS 제이홉





KB X BTS

대한민국대세  
모바일뱅킹

KB스타뱅킹



일상을 바꿔놓을 새로운

 인증 없이 5초 만에 보내는 KB 빠른이체	 로그인 없이 계좌 확인 KB 계좌뷰
 자산관리를 게임처럼 즐겁게 KB Play Asset	 우대환전에 외화 배송까지 KB 외화환전

※ KB스타뱅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거나 스마트상담부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9.03.19 까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3-1호(2018.03.02)

KB 국민은행

## 베토벤

### 교향곡 제 9번 D단조 Op.125 '합창'

L.v. Beethoven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음악학자 니콜라스 쿡(Nicholas Cook)은 오늘날 '합창' 교향곡이라 불리는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서양음악의 주류 레퍼토리에 포함된 모든 작품 중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이야말로 작품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희망, 두려움을 반영하고 또 굴절하는 거울로 이루어진 구조물인 것 같다. 그렇기에 초연 이래 지금까지, 9번 교향곡은 서로 완전히 정반대인 해석들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초연 이후 적지 않은 혹평을 들었던 이 교향곡에 담긴 유토 피아적이고 인본주의적 이상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단지 서양음악의 위대한 걸작일 뿐만 아니라 음악이 음악 너머의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은 오늘날 서양음악의 영역을 넘어서는 아이콘의 영역에 있는 작품이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합창' 교향곡을 특별히 중시하며 여러 번 지휘했고, 1872년 바이로이트 극장의 초석을 놓는 날에도 이 교향곡을 연주했다. 최초의 직업 지휘자로 불리는 한스 폰 뷔로는 제야 음악회인 실베스터(Silvester:신년전야)와 신년을 베토벤 9번으로 축하하는 전통을 세웠고 그 뒤를 이은 아르투르 니키슈와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역시 이 작품을 '신성한 의식'처럼 대하면서 특별한 날에만 연주했다고 한다. 1951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단되었던 바이로이트 축제가 재개되었을 때 푸르트벵글러가 개막 공연 작품으로 고른 것도, 1963년 베를린 필하모니홀 개관 공연에서 카라얀이 고른 것도 '합창' 교향곡이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1989년 크리스마스에 베를린 장벽 철거를 축하하면서 전쟁 당사국인 여섯 나라 오케스트라에서 모인 연주자들로 꾸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 베를린(Schauspielhaus)에서 '합창' 교향곡을 지휘하며 '환희(Freude)'가 아닌 '자유(Freiheit)'의 송가를 노래했다. 번스타인이 생전에 지휘한 마지막 '합창' 교향곡이기도 했던 이날 연주회는 우리나라에도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에서도 통합과 화합의 의미로 '환희의 송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명훈과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가 평화콘서트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평화를 노래한 베토벤 9번을 연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향곡 8번을 완성한 1812년 이후, 베토벤의 개인적인 삶은 여러 모로 힘들었고, 작품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 온갖 혼란과 고난을 뚫고 환희에 도달하는 교향곡 9번의 구조처럼, 교향곡에 성악을 더한다는 전대미문의 구상이 현실화되었던 작곡 과정 역시 험난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향곡 9번은 작곡가가 거의 평생에 걸쳐 구상을 가다듬은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토벤은 일찍부터 실러(Friedrich Schiller)의 '환희의 송가(1785)'에 감동해서 노래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첫 스케치는 빈으로 이주하기도 전인 1792년 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꾸준히 실러의 송가에 음악을 붙여보려는 시도를 했고, 결국 1817년 런던의 필하모니 협회에서 신작 교향곡 두 곡을 의뢰하고 1822년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게 된다. 다만 베토벤이 교향곡 9번에서 처음부터 성악이 붙은 교향곡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본질적으로 기악 작곡가였던 베토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악이 붙은 교향곡을 (9번과 짝을 이루는) 10번, 혹은 다른 교향곡으로 미루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9번 교향곡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모습이 갖추어졌고, 10번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베토벤은 1822년 오랜 시간이 걸렸던 <장엄미사>를 완성시킨 후 1823년 내내 교향곡 작곡에 매달렸으며 작품은 이듬해인 1824년 2월에 완성되었다. 초연은 같은 해 5월 7일에 이루어졌으며, 청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 베토벤은 이 공연에서 '총지휘'를 맡았다.

### I. 알레그로 마느 트로포, 운 포코 마에스토소

1악장은 조용하게 흔들리는 화음으로 시작된다. 이것으로부터 곧 단순한 주제가 폭발하듯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태초의 혼돈을 연상했다. 또한 이것은 베토벤이 이전 교향곡에서도 표현했던 비극적인 영웅의 모습, 혹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악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송곡 풍의 선율은 한 때 베토벤 자신도 열중했던 나폴레옹 시대의 낙관주의에 올리는 종말일 것이다.

### II. 스케르초. 몰토 비바체

베토벤은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2악장에 스케르초를 배치했는데, 그 후 브루크너를 비롯한 여러 후배들이 이를 본받게 된다. 베토벤이 직접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교향곡의 스케르초 형식은 여기서 정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향곡의 스케르초는 익살스럽다기보다는 예리하고 음울하며 그 강렬한 힘과 집중력은 소나타 형식에 결여된 푸가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반면 중간에 등장하는 차분한 찬가 풍의 선율에는 4악장에 등장할 '환희의 송가'가 살짝 암시되어 있다.

### III. 아다지오 몰토 에 칸타빌레

2악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평화로운 목가 풍의 아다지오 3악장은 아마도 베토벤이 쓴 가장 서정적인 음악으로, 지난 2세기에 걸쳐 위대한 지휘자들은 두 개의 주제가 변주곡으로 펼쳐지는 이 악장에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드러냈다. 여기서 베토벤은 이미 차갑게 죽어버린 희망을 뒤로 하고 새로운 영웅,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꾸었던 것일까. 이 느린 악장은 광활한 우주처럼 혼란스러운 나머지 세 개 악장과 충격적인 대비를 이루며 더욱 숭고한 느낌을 준다.

### IV. 프레스토 - 알레그로 아사이 - 프레스티시모

휴머니즘의 승리를 선언하는 4악장은 실러의 '환희의 송가'에 붙인 칸타타라고 할 만하는데, 작품의 귀결점이자 단독으로도 종종 연주된다.

이전 세 개의 악장에서 끊임없이 암시했던 '환희의 송가' 주제 선율은 4악장에 이르러 명쾌한 과정을 통해서 제시된다. 세 악장의 주제 선율이 다시 제시되고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마치 레치타티보(Recitativo: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처럼 이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이 여정은 점차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하는 주제 선율로 연결되고, 베이스 독창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해서 독창자와 합창단이 일제히 실러의 가사를 노래하면서 절정에 도달한다. 하지만 베토벤은 9번 교향곡의 자매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장엄미사>의 '아누스 데이'에서 내면의 평화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했듯이, 여기서도 '만민이 서로 포옹하는' 이런 이상적인 세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합창단이 창조주를 노래하는 다음 슬쩍 끼어드는 이질적이고 어두운 음향, 독창 테너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풍자적으로 연주되는 터키 군악대 풍의 음악, 마지막 부분에서 가사와 전혀 동떨어진 트럼본과 저음현, 남성 합창의 어두운 음향은 마치 음악에 대해, 우주에 대해, 사회에 대해, 사람에게 대해 베토벤이 던지는 날카로운 성찰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합창' 교향곡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듣는 이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글 | 이준형(음악 칼럼니스트)



# 환희의 송가 Ode to Joy 4악장 중

**O Freunde, nicht diese Töne!**

오, 벗들이여! 이 선율이 아니오!

**Sondern laßt uns angenehmere anstimmen,  
und freudenvollere.**

좀 더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Freude! Freude!**

환희여! 환희여!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che, dein Heiligtum!**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자!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는도다.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그리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

**Wem der große Wurf gelungen,**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진실된 우정을 얻은 자여

**Wer ein holdes Weib errungen,**

**Mische seinen Jubel ein!**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자여,

다 함께 모여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Ja, wer auch nur eine Seele**

**Sein nennt auf dem Erdenrund**

그렇다, 비록 하나의 마음이라도

땅 위에 그를 가진 사람은 모두 다

**Und wer's nie gekonnt, der stehle**

**Weinend sich aus diesem Bund!**

그러나 그조차 가지지 못한 자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떠나 가거라!

**Freude trinken alle Wesen**

**Anden Brüsten der Natur**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연의 가슴에서 환희를 마시고

**Alle Guten, alle Bösen**

**Folgen ihrer Rosenspur.**

모든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녀의 장미핀 오솔길을 환희 속에 걷는다.

**Küsse gab sie uns und Reben,**

**Einen Freund, geprüft im Tod**

환희는 우리들의 입맞춤과 포도주,

죽음조차 빼앗아 갈 수 없는 친구를 주고

**Wollust ward dem Wurm gegeben,**

**Und der Cherub steht vor Gott. (vor Gott, vor Gott.)**

땅을 기는 벌레마저 기쁨을 선물받고,

천사 케루빔은 신 앞에 선다. [신 앞에, 신 앞에]

**Froh, Froh, wie seine Sonnen fliegen**

**Durch des Himmels prächtgen Plan,**

환희여, 환희여 수많은 태양들이 천국의

영광스런 계획을 따라 빛나는 창공을 가로지르듯

**Laufet, Brüder, eure Bahn,**

형제여, 그대들의 길을 달려라.

**Laufet, Brüder, eure Bahn,**

형제여, 그대들의 길을 달려라.

**Freudig, wie ein Held zum Siegen,**

**wie ein Held zum Siegen**

영웅이 환희에 찬 채로 승리의 길을 달리듯

**Laufet, Brüder, eure Bahn,**

형제여, 그대들의 길을 달려라.

**Freudig, wie ein Held zum Siegen,**

**wie ein Held zum Siegen**

영웅이 환희에 찬 채로 승리의 길을 달리듯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che, dein Heiligtum!**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자!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는도다.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그리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ss der ganzen Welt!**  
 백만인이여, 서로 포옹하라!  
 전 세계인의 입맞춤을 받아라!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ss ein lieber Vater wohnen.**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다.

**Ihr stürzt nieder, Millionen?**  
 억만의 사람들이여, 엎드려 빌겠는가?

**Ahnest du den Schöpfer, Welt?**  
 세계의 만민이여, 창조주가 계심을 알겠는가?

**Such' ihn überm Sternenzelt!**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천공의 저편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찾으라!

**Über Sternen muss er wohnen.**  
 별들이 지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자!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ss der ganzen Welt!**  
 백만인이여, 서로 포옹하라!  
 전 세계인의 입맞춤을 받아라!

**Ihr stürzt nieder, Millionen?**  
 억만의 사람들이여, 엎드려 빌겠는가?

**Ahnest du den Schöpfer, Welt?**  
 세계의 만민이여, 창조주가 계심을 알겠는가?

**Such ihn überm Sternenzelt!**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천공의 저편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찾으라!

**Brüder!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ss ein lieber Vater wohnen.**  
 형제여!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다.

**Freude,, Tochter aus Elysium,**  
 환희여, 낙원의 딸들이여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는데다.

**Alle Menschen**  
 모든 인간은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그리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는데다.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ss der ganzen Welt! der ganzen Welt!**  
 백만인이여, 서로 포옹하라!  
 전 세계인의 입맞춤을 받으라! 전 세계의!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ss ein lieber Vater wohnen.**  
**ein lieber Vater wohnen.**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Seid umschlungen,**  
 백만인이여,  
**Diesen Kuss der ganzen Welt! der ganzen Welt!**  
 전 세계인의 입맞춤을 받으라, 전 세계의!

**Freude,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환희여,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Tochter aus Elysium,**  
 낙원의 딸들이여,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Götterfunken!**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신의 광채여!



프랑스 <르 몽드>지에서 '영적인 지휘자'라고 극찬한  
이 세대의 가장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는 지휘자, 정명훈

© JEAN-FRANÇOIS LÉGLERCO

# 정명훈 MYUNG-WHUN CHUNG

지휘자 | Conductor

뉴욕 매네스 음대와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공부한 그는 1979년 거장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보조지휘자로 경력을 시작하여, 2년 후 이 오케스트라의 부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정명훈은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런던 심포니,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뉴욕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유럽과 미국 등지의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하였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파리 바스티유, 빈 슈타츠히어를 비롯한 세계 오페라 우수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지휘를 하였다.

1984-1990년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1989-1992년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수석객원지휘자, 1989-1994년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1997-2005년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및 2001-2010년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특별 예술 고문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프랑스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2005년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고문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1995년 직접 창단한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역사상 최초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1988년 이탈리아 비평가들이 선정한 '프레미오 아비아티 상'과 이듬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상'을 수상했으며,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의 '올해의 아티스트상', 1995년 프랑스에서 '브루노 발터 상'과 프랑스 음악인들이 선정하는 '음악의 승리상'에서 최고의 지휘자 상을 포함 3개 부문을 석권한 데 이어, 2003년에 다시 '음악의 승리상'을 비롯하여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코망뒤르 레종도뇌르 훈장', 일본의 '레코드 아카데미상',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 훈장' 등 수 많은 세계적 권위의 상을 수상했다.

1984년부터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30여 장의 음반을 레코딩하며 유명 음반상을 휩쓸었으며, 특히 메시앙이 그에게 헌정한 <사중주를 위한 협주곡>을 비롯한 메시앙의 음반들 <투랑갈릴라 교향곡> <파안의 빛> <그리스도의 승천> 등과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로시니의 <스타바트 마테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베르디의 <오텔로>, 쇼스타코비치의 <므첸스크의 맥베드 부인> 등은 최고의 음반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11년 도이치 그라모폰과 아시아 교향악단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향의 5년 전속 음반계약을 체결했다.

인도주의적 대의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오고 있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2010년 서아프리카의 베닌을 방문하여 에이즈, 식수 위생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2008년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 미래클오브뮤직을 통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인도주의적인 대의를 음악과 연계하고 있다.



© MIRACLE OF MUSIC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ONE KOREA ORCHESTRA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남북한 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오케스트라 전·현직 단원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연주자 등이 모인 교향악단이다. 원 코리아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되는 한국'을 표방하는 이 단체는 정명훈 음악감독의 리더십 아래 화합과 평화를 연주하기 위해 모였다.

“나는 음악인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남북한 문제이다” 라는 정명훈 지휘자의 말은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탄생 배경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 그는 오래 전부터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 무대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2년 엔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합동연주를 지휘하기도 했고, 이후 2015년 평양에서 독일 교향악단을 지휘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서로 남북한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언젠가 남북한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것이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 신지아 ZIA HYUNSU SHIN

악장 | Concertmaster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과 함께 연주자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2015년부터는 KBS 1TV <더 콘서트>의 MC로 활동하면서 연주자로서 드문 활약을 펼쳤다.

그는 전주예고 1학년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로 조기 입학, 2004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3위(1위 없음), 2005 티보 바가 국제 콩쿠르 3위와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 3위, 2006 하노버 국제 콩쿠르 2위, 2007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 그리고 롱-티보 콩쿠르 4관왕까지 놀라운 속도로 국제 콩쿠르를 섭렵한 후 현재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수영아트 트레이드에서 후원 받은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반려견 공놀이 기계 (주)블레디

색칠놀이 앱 (주)에스튜디오

가구매칭 앱 (주)아해라이프스타일

# 함께 창업하고 함께 성공하는 친구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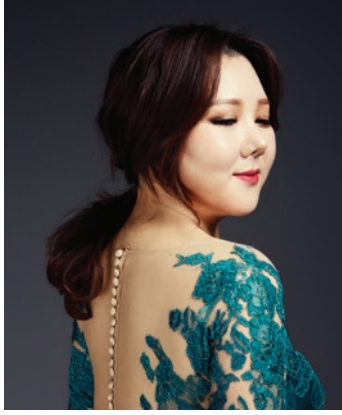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는 '반려견공놀이기계'를,  
미니홈피에 재능이 있던 친구는 '가구매칭앱'을, 그림에 끼가 있던 친구는 '색칠놀이앱'을 만들었습니다.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가 되도록 IBK동반자금융이 함께 뛰겠습니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 2018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단원리스트

악장	<b>신지아</b>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3위		
제1바이올린	<b>웨인 린 *</b>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	비올라	<b>이수민 *</b> 인제대학교 교수
	<b>한지연</b>	서울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제1수석		<b>강윤지</b>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제2수석
	<b>주연경</b>	서울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부수석		<b>김유나</b> 대전시립교향악단 비올라 부수석
	<b>문지원</b>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단원		<b>이선주</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허상미</b>	서울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차석		<b>김성은</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민정</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홍지혜</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송혜림</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성민경</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최해성</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안톤 강</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이예별</b>	홍콩시티 체임버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역임		<b>구이삭</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우혜경</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대일 김</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주연주</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이지윤</b>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b>유미나</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조재현</b>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b>이예나</b>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b>정명아</b>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영준</b>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첼로	<b>주연선 *</b> 중앙대학교 교수
제2바이올린	<b>설민경 *</b>	밤베르크 교향악단 단원		<b>심준호</b> 서울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b>임가진</b>	서울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b>김소연</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덕우</b>	서울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부수석		<b>장소희</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예원</b>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바이올린 수석		<b>김근혜</b> 전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b>정지혜</b>	서울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차석		<b>박은주</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한효</b>	제주도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b>박무일</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수영</b>	서울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차석		<b>최운선</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미경</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최지현</b>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영아</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최혜인</b>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b>김미연</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이혜미</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이호준</b>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b>진영규</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장새로미</b>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더블베이스	<b>안동혁*</b>	서울시립교향악단 더블베이스 수석	바순	<b>곽정선*</b>	서울시립교향악단 바순 수석	
	<b>이영수</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정수은</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장승호</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최종선</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진철</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박준태</b>	과천시립교향악단 바순 수석	
	<b>조정민</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한민아</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정두웅</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민철</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플루트	<b>박지은*</b>	서울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	호른	<b>이석준*</b>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b>장선아</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주홍진</b>	인천시립교향악단 호른 수석	
	<b>송연화</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이세르게이</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조철희</b>	디토 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		<b>최윤</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오형석</b>	충북시립교향악단 호른 수석	
오보에	<b>이미성*</b>	서울시립교향악단 오보에 수석	트럼펫	<b>정태진*</b>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객원 단원	
	<b>이연주</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광일</b>	네덜란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카데미스트	
	<b>류경균</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고관수</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클라리넷	<b>장재혁*</b>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트럼본	<b>정희석*</b>	수원시립교향악단 트럼본 수석	
	<b>이진아</b>	디토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수석		<b>손상우</b>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연수 단원	
	<b>차다윤</b>	디토 오케스트라 단원		<b>김태훈</b>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b>김현수</b>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				
			팀파니	<b>윤재현*</b>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타악기 수석	
				타악기	<b>김철우</b>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b>김성훈</b>	수원시립교향악단 단원
			<b>한문경</b>		TIMF양상블 단원	





## 홍주영 JU-YOUNG HONG

소프라노 | Soprano

아름다운 음색과 성량, 그리고 진실된 음악으로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소프라노 홍주영은 추계예술대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였다. 국내에서는 중앙콩쿠르 3위, KBS 콩쿠르 1위 외 다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이탈리아로 건너가 브레사국립음악원을 졸업, 레나타 테발디 국제콩쿠르, 줄리에타 시미오나토 국제콩쿠르, 비오티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하였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49회 프란체스코 비냐스 국제콩쿠르에서 2위, 베르디 국제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는 지휘자 정명훈이 지휘한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의 미미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였으며, 2015년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에서 <라보엠>의 미미로 활약,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최고의 미미"로 인정받았다. 2014년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코지 판 투테>와 국립오페라단의 <돈조반니>에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독일 칼스루에 극장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이어 국립오페라단과 대구오페라축제의 <진주조개잡이> 한국 초연에서 주연 레일라 역을 선보였으며, 2017년 다시 한 번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에서 미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소프라노 홍주영은 2018년 교향악축제에 광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필두로, 예술의전당 콘서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부인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8월에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열리는 Birgitta Festival에서 세계적인 연출가 마르코 간디니와 함께 <라 보엠>의 미미 역으로 출연한다.

# CREDIA



## 양송미 SONGMI YANG

메조소프라노 | Mezzo-Soprano

오페라무대의 주역으로 활동 중인 성악가 양송미는 부산예고, 서울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오스트리아 GRAZ 국립음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아 음악콩쿠르와 스페인 비냐스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오스트리아 빈국립오페라극장, 그라츠오페라극장에서 우리시대의 오르페우스, 마적, 그림자없는 여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카르멘, 오텔로, 라 트라비아타, 발퀴레, 수녀 안젤라카, 아드리아나 뢰쿠브리르,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파르지팔 등 수십 편의 오페라에 출연하였다.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예술의전당 오페라, 대구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보리스 고두노프, 아이다, 카르멘, 이도메네오, 돈 카를로, 루살카, 일 트로바토레, 베르테르, 리골레토, 운명의 힘, 라 트라비아타, 주몽, 손양원, 춘향전, 살로메, 노르마 등의 오페라의 주역으로 무대에 섰다.

또한 MBC가을 맞이 가곡의 밤, KBS 더 콘서트, KBS신작 가곡의 향연 등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으며,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국립합창단 및 전국 시,도립합창단과 메시아, 엘리야, 베르디 레퀴엠 등 많은 오라토리오를 비롯하여 말러, 베토벤 교향곡의 알토 솔로이스트로 협연하였다. 2014년에는 시티 오브 런던 페스티벌(City of London Festival)에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초청받아 무대에 섰으며,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된 정명훈&서울시향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앨범의 알토 솔로이스트로 참여하였다.

현재 경성대 예술종합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박지민 JI-MIN PARK

테너 | Tenor

테너 박지민은 서울대학교를 졸업, 빈 음악원의 Carolyn Hague 교수 밑에서 공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로얄 코벤트 가든 오페라 하우스에서 제트 파커 영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 특별상, 오스트리아의 국제 벨베데레 성악 콩쿠르, 프랑스의 국제 아트송 콩쿠르에서의 1위와 관객상, 그리고 2009년에 스텔라마리스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의 퍼포먼스 상, 비엔나 베르비에 성악 콩쿠르에서는 특별상, 제7회 국제 비두 사야오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BBC 카디프 콩쿠르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2010년 런던 코벤트 가든 <라보엠> 로돌포 역으로 유럽 데뷔를 시작으로 BBC Proms 에서 <트로인의 사람들>이오파스 역, 웨일즈 오페라 하우스, 리즈 오페라 노스, 프랑스 툴루즈, 이탈리아 베니스 라페니체, 일본 도쿄 신 국립극장, 호주 시드니 오페라, 칠레 산티아고 극장, 미국 신시네티, 아틀란타, 달라스 등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역, <사랑의 묘약>의 네모리노 역, <람메르 무어의 루치아>의 에두아르도 역, <돈 파스칼레>의 에네스토 역, <자니 스키카>의 리누치오 역,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역, <마농>의 데 그리외 역 등 주역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라보엠은 DVD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출시되었다. 또한 런던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독일 자브뤼켄 독일방송교향악단,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초청받아 베르디 레퀴엠, 헨델 메시아, 로시니 마태수난곡 등을 공연하며 그의 음악적인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한국에서는 국립 오페라단, 코리아 심포니, 경기필하모닉과 공연하였다.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저명한 오페라 지휘자인 리처드 보닝, 안토니오 파파노, 뉴욕 메트 오페라단의 야닉 네제-세갱, 등과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과도 함께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CREDIA



## 함석헌 SEOKHEON HAMM

베이스 | Bass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인 함석헌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원 수석졸업, 이탈리아 메라노 국제 성악 콩쿠르와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국제 성악 콩쿠르, 독일 쾰른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하우스 데뷔 후 독일 할레 오페라하우스, 국립오페라단 상근단원 2003~2008 주역 가수를 역임했으며, 헨델 오페라페스티벌, 윤이상 국제음악제, 홍콩아트페스티벌, 도요타문화재단 한류성악가 초청공연, 다니엘 바렘 보임과 임진각 DMZ 평화콘서트, MBC 가곡의 밤, KBS 열린음악회, SBS 송년 음악회, CTS 내 영혼의 찬양 등 다양한 무대에 섰다.

베토벤 교향곡 9번, 베르디 레퀴엠, 말러 교향곡, 메시아 등의 주요 작품 독창자로 꾸준히 서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투데이 2012년을 빛낸 성악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현재 인천 계양구청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있다.



## 국립합창단

###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단의 효시로서, 본격적인 합창예술운동의 선두주자이며, 합창음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 최고의 프로합창단이자 세계 최고의 전문합창단이다. 2000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여 매년 5회의 정기연주회와 60회 정도의 기획연주, 지방연주, 특별연주, 해외연주, 외부출연, 공공행사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합창의 대중화와 합창음악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한국 음악, 특히 한국 성악계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국립합창단은 현재 한국에서 불리는 바흐의 마태요한 수난곡,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까르미나 부라나, 엘리아, 천지창조, 메시아 등 유명 정통 합창곡들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국립합창단은 매년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합창음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합창곡 개발과 더불어 한국적 특성과 정감을 표출하는 창법, 해석법의 정립 등에 힘을 기울여 한국합창음악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합창음악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물론 더 나아가 한국의 성악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현재의 연주 역량은 세계 유수 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세계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국립합창단이 배출한 합창지휘자들은 국내 합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주역으로 부상했으며, 국립합창단에 몸담았던 성악가들은 오늘날 오페라 무대와 대학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국립합창단은 10대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끌고 있다.

# CREDIA



## 안양시립합창단

### THE ANYANG CIVIC CHORALE

안양시립합창단은 1987년에 창단되어 116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 그리고 유수의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고전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연주한 오페라<안중근>, 일본 동경에서 연주한 오페라<황진이>는 안양시립합창단이였기에 가능한 연주였다는 평을 들었다.

안양시립합창단은 뛰어난 연주와 기획, 그리고 정통합창 사운드로 최고의 합창단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합창 애호가들로부터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40여회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클래식, 팝송, 가곡, 뮤지컬 등을 통해 더욱 친숙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합창 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곡, 성가, 팝송 등을 담은 9장의 CD를 제작하였으며, 매년 서울시향 및 KBS 교향악단과 협연을 하고 있다. 특별히 2013년 겨울에는 서울시향(지휘: 정명훈)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Beethoven Symphony No.9 'Choral')을 녹음하여 출판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합창연맹(IFCM)으로부터 2008세계합창심포지움(덴마크 코펜하겐)에 초대되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동양의 특이하고 환상적인 사운드에 매료되었다'는 평을 들었으며, 수준 높은 음악적 예술성을 전 세계 합창계에 보여주며 세계 속에 한국 합창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메신저(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ONIO PAPPANO —

SEONG-JIN CHO —

DANIL TRIFONOV —

#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안토니오 파파노

**11.15** **thu**  
다닐 트리포노프

**11.16** **fri**  
조성진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클래식의 역사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BERLIN · HAMBURG · HANNOVER · HONG KONG · LONDON  
SHANGHAI · TAIPEI · TOKYO AND SEOUL

# 120 YEARS OF DEUTSCHE GRAMMOPHON ANNIVERSARY CONCERT



##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갈라콘서트

조성진, 안네 소피 무터 그리고 정명훈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2018.12.6 THU 조성진

12.7 FRI 안네 소피 무터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PRESENTER | ARTS & ARTISTS CREDIA A UNIVERSAL MUSIC COMPANY INTERNATIONAL

TITLE SPONSOR | Mercedes

OFFICIAL SPONSOR | kakao

SUPPORTER | UNIVERSAL KOREAN AIR

TICKET | R석 20만원 | S석 16만원 | A석 12만원 | B석 8만원 | C석 5만원

BOOKING | Melon 1899-0042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Club BALCONY 1577-5266 (회원전용)

12.6 | 모차르트 피아노 콘체르토 20번 d단조 K.466 (협연: 조성진)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 12.7 |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Op. 26 (협연: 안네 소피 무터)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 MIRACLE OF MUSIC

“음악가로서 내 마지막 꿈은  
원 코리아(One Korea)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 정명훈과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2017년 8월, 정명훈 지휘자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를 결성했다.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인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나이, 성별, 소속 등을 초월해 모인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모임이다. 국내외 솔로이스트로 활동하는 실력파들이 정명훈 지휘자의 리더십 아래 모여 클래식 음악으로 남북이 가까워지고 나아가 ‘하나의 한국’이 되기를 바라며 모인 것이다.

정명훈 지휘자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남북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연주하는 것이지만, 그 날이 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들이 같이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지만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음악가들끼리도 한 목소리로 서로를 원하고 있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야겠다 싶어서 시작했죠.”

### 9월 2일 대한민국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선율

“베토벤은 인간의 자유를 그린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북한에서 연주할 때 꼭 베토벤을 선택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베토벤은 일평생 자유를 위해 싸운 음악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베토벤 교향곡 ‘합창’이다. 환희와 인류애를 노래하는 이 곡은 4악장 환희의 송가 나오는 ‘모든 인간은 한 형제’라는 가사 덕분에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곡으로 널리 연주된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 공연에서 번스타인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합창’을 연주하여 더욱 의미가 깊은 곡이다. 번스타인은 당시 ‘환희의 송가’를 ‘자유’의 송가로 바꾸어 부르게 했다.

정명훈 지휘자는 서울시향 송년음악회, 광복절 기념음악회, 한일수교 50주년, 시티 오브 런던 페스티벌 등 주요 공연 때마다 이 곡을 선택했고, 도이치그라모폰을 통해 실황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2011년과 2012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실제로 북한 연주자들과 베토벤 ‘합창’을 연주하려고 하기도 했다.

“[북한과의 협연 당시] 베토벤 9번 교향곡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습했어요. 북한 음악가들에게는 평생 처음 연주해보는 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연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남북한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은 정명훈에게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으로 남아 있다. 이번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9번 교향곡 연주 무대는 이러한 정명훈의 오랜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음악으로 영원히 기억될... 네빌 마리너 경을 기리며

W.A.MOZART

Piano Concerto No.21 in C Major, K.467

Piano Concerto No.8 in C Major, K.267

ORCHESTRAL ENSEMBLE SEOUL

# AMADEUS

손열음의 <아마데우스>

손열음 음반 <MOZART> 출시



2018년 10월 7일(일) 5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unday, October 7, 2018, at 5PM Seoul Arts Center, Concert Hall

주최 **CREDIA** **yesm** 후원 **KOREAN AIR** 티켓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TOUR** 10/09 광주문화예술회관 10/12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0/18 천안예술의전당  
10/21 부산 영화의 전당 10/23 대구 콘서트하우스 10/25 강릉 아트센터 10/27 원주 백운아트홀

요요 마의 손이 닿으면  
낮선 음악도 가장  
흥미로운 음악이 된다!

HYOSUNG CULTURE SERIES 5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THE SILKROAD ENSEMBLE WITH YO-YO MA

2018년 10월 17일(수)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pm Wednesday, October 17,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주최 CREZIA INTERNATIONAL 협찬 HYOSUNG 후원 KOREAN AIR 티켓 R석 18만원 | S석 14만원 | A석 10만원 | B석 6만원 | 학생석 3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MYUNG-WHUN CHUNG & ONE KOREA ORCHESTRA**

**CREDIA**

#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